

[중국민족]

몽골족의 역사와 세시풍속

초원을 누빈 유목의 혼, 그 발자취를 따라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



몽골족은 중국에서 인구가 비교적 많고 분포 지역이 넓은 소수민족이다. 2010년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인구가 650만명으로 주로 내몽골자치구에 집거해있고 그외에도 료녕, 길림, 흑룡강과 신강, 청해 등 여러 곳에 분포되어있다.

몽골족은 자체의 언어와 문자를 보유하고 있다. 몽골어는 알타이어계의 몽골어족에 속하며 중부와 서부, 동북부 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몽골문자는 병음문자 류형에 속하고 칭기스칸 시대에 창제되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몽골문은 29개 자모가 있다.

몽골족은 고대의 망건하(望建河) 즉 지금의 얼굴강(额尔古纳河)의 동쪽 일대에서 기원했다. 몽골족의 기원과 관련해서 재미 있는 전설이 있다. 13세기 몽골족의 전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전 몽골부락이 다른 유목부락의 공격으로 남자 두명과 여자 두명만 남았는데 이

들이 얼굴강 일대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후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산을 빠져나오려 했고 큰 풍로를 만들어 철로 된 산을 녹여 통로를 내고 부락민 전체가 산을 내려왔다고 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칭기스칸 민족은 설날그믐날 밤이면 작은 쇠덩이를 붉게 달구어 이를 두드림으로써 조상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몽골은 당나라 때의 몽골족을 부르던 칭호다. ‘몽골’이라는 이름은 시초에는 몽골 여러 부락중 한 부락의 이름이었다. 13세기초에 칭기스칸을 두렵으로 하는 몽골부는 몽골지역의 여러 부락을 통일함으로써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했고 ‘몽골’도 원래의 부락 이름에서 민족의 명칭으로 변화했다. ‘몽골’이란 명칭의 뜻은 ‘영원한 불’로 풀이된다. 또 고대 몽골어에서는 ‘질박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몽골족은 세세대대로 초원에 살면서

축목업을 생계수단으로 삼아왔다. 이들은 물과 풀이 있는 곳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생활을 했다. 비록 이런 생활방식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많이 변화하기는 했지만 유목생활은 여전히 몽골족의 표징으로 된다.

1206년에 테무진이 위난강변에서 있는 대집회에서 몽골대칸으로 추대되고 칭기스칸이라 칭하면서 대몽골국이 탄생했다. 하여 중국 북방지역에는 여러 부락을 통일한 강대하고 안정된 민족 몽골족이 나타났다. 칭기스칸 때부터 그의 손자 쿠빌라이르는 70여년 동안 몽골족은 중국을 통일하고 거대한 판도를 자랑하는 원나라를 세웠다. 그러다가 1368년에 명나라에 의해 멸망되었다.

1947년 5월 1일 내몽골자치구가 창립되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창립된 자치구이다. 이어 9개 자치주와 자치현들이陆속 세워졌다.

역사가 유구한 몽골족은 다양한 세

시풍속들을 전해내려왔는데 그중에서도 제사 의례는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대표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오보(敖包, 흙, 돌, 풀 등으로 쌓아올려 경계나 이정표로 삼은 무더기)에 제를 지내는 풍속은 몽골 민족의 성대한 제사활동중 하나이다. 오보는 일반적으로 높은 산이나 구릉에 만들며 돌로 원추형의 탑을 쌓고 꼭대기에는 가족의 털이나 빨 혹은 경문을 적은 천을 매단다. 그리고 사방에는 향을 사르는 돌을 놓는다. 오보 옆에는 나무가지를 꽂아 두며 제사용으로 양과 말 짚술, 치즈 등을 공양품으로 한다. 린근 주민들은 매년 이곳에 찾아와 제사를 지내며 사람과 가족의 번성을 기원한다. 고대에는 샤머니즘(萨满教)의 무당이 복을 두드리며 주문을 외웠고 근대에는 라마승(喇嘛僧)이 향을 사르고 경문을 읽었다. 목축민들은 오보 주위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세바퀴 돌면서 신의 가호를 빈다. 제사 의식을 마친 후에는 ‘나다무’ 활동을 진행하는데 목민들은 씨름, 경마, 활쏘기 등 전통 스포츠에 참여하고 노래와 춤을 추며 함께 모여 술잔을 기울인다.

칭기스칸릉에 제사를 지내는 풍속은 몽골민족의 가장 성대하고 장엄한 제사 행사이다. 칭기스칸은 몽골민족이 숭배하는 민족영웅으로 그의 제사는 아들 세대에서 시작되어 손자 쿠빌라 때에 이르러 성지(圣旨)를 반포해 제례를 공식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제사는 일제, 월제, 계절제로 나뉘며 고정된 날자가 있다. 공양품으로는 통양과 술, 다양한 유제품이 있다. 특히 춘계 제사는 음력 3월 21일에 거행되며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성대하다.

/ 중국국제방송

수이족의 전통 명절 ‘과절’



11월 1일, 귀주성 용강현 인리조수이족향 당민촌에서는 수이족(水族)의 전통 명절인 ‘과절’(瓜节)이 개최되었다. 축제 행사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민족 체험과 생동감 넘치는 민속 활동들을 통해 수이족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다.

행사 현장에서 주민들은 민족복장을 차려입고 감미로운 환영 노래와 직접 빛은 막걸리로 먼곳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을 맞이하였다. 무형문화유산 공연장에서는 동고(铜鼓)와 로쟁(芦笙, 현지 소수민족의 전통 악기)의 울림이 이어졌는데 우렁찬 북소리와 감미로운 악기 소리가 수이족의 오랜 역사적 기억을 전달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구역에서는 신선한 호박, 고구마, 수제 단술(甜酒)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현장에서는 정겨운 향토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한편 ‘수서 해독’(解密水书) 체험 구역은 사람들이 붐비는 인기 코너가 되었다. 수서 전승인이 현장에서 옛 문자의 의미를 설명

해주고 관광객들은 ‘수서 맞추고 농산물 받기’ 활동을 통해 수이족 문자에 담긴 축복과 기록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다.

엄숙한 조상 제사 의식은 ‘과절’의 중요한 부분이다. 마을 사람들은 옛 레범에 따라 조상들에게 과일과 찹쌀밥을 바치고 마을 어른이 수이족 언어로 축사를 하며 풍년과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의식이 끝난 후 광장에는 ‘백가연’(百家宴)이라 불리는 긴 식탁이 펼쳐졌다. 찰면탕(酸汤鱼), 찹쌀밥, 막걸리 등 특색 있는 음식들이 차례로 올라오자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은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였다.

이번 ‘과절’ 행사는 란문주(拦门酒), 수서 체험, 장탁연 등을 통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을 이끌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수이족 문화의 ‘뿌리’를 느끼고 웃음 속에서 수이족 인민들의 열정적인 환대를 느끼게 하였다.

/ 귀주일보

창립 40주년 맞은 양비이족자치현



11월 1일, 운남성 대리바이족자치주 양비이족자치현(漾濞彝族自治县)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현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한자리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이 중요한 순간을 함께 경축했다.

양비는 대리바이족자치주 중부에 위치하며 점장산(点苍山)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 도시는 차마고도(茶马古道)와 남방 육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으로 알려져있으며 1912년에 현으로 되었다. 1985년 6월 11일, 국무원은 ‘양비현을 폐지하고 양비이족자치현을 창립’할 데 대해 비준했으며 같은 해 11월 1일에 자치현 창립 기념식이 열렸다.

현재 양비현은 4개 진, 5개 향, 65개 촌위원회와 1개의 사회구역을 관할하고 있다. 현내에는 이족, 한족, 바이족, 회족 등 13개 민족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다. 2021년에는 ‘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현’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양비이족자치현인민정부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무용 작품 무한에서 매력 발산



최근,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의 20여명 배우들이 무한에서 개최된 2025년 전국 소수민족 우수무용작품 전시회에서 김립성을 대표하여 무용 작품 〈환고운〉으로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환고운〉은 조선족 특색이 짙은 장고의 격양된 리듬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색채와 회전하며 놀라리는 상모색띠를 결합해 전통의 민족성과 예술성을 계승한 동시에 작품의 시각적감상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환고운〉은 김립성 제 3회 소수민족문예회보공연 무용부문에서 2

등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성급 전문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결과이다.

〈환고운〉이 전국 공연 무대에 오르면서 연길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 사업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관객들에게 연길을 홍보하고 길림을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연길시는 가장 대표적인 조선족 가무예술을 전국의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여러 민족간 문화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 인민넷

图说
我们的
价值观

富强 民主 文明 和谐
自由 平等 公正 法治
爱国 敬业 诚信 友善

与人为善 一路吉祥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陕西户县 王文吉作